

16일 Market Index			
↓ 코스피	2609.63	↓ 코스닥	832.81
	(-60.80)		(-19.61)
↑ 금리 (미국 9년)	3.469	↑ 환율 (원·달러)	1394.50
	(+0.029)		(+10.50)

# metro® 경제

지정학적 위기에  
안전자산 수요 증가  
금, 또 최고가 경신  
03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02)721-9841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 총선 끝, 식품값 줄인상... 중동약재 '물가폭탄' 부채질

치킨·버거 등 일제히 가격 상승  
코코아·설탕 등 원재료값 올라  
식품업계 전반 확대 가능성 ↑

중동 불안정에 국제유가 급등  
전기·가스 요금 인상도 주목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자마자 우려했던 식품업계의 '가격 인상'이 현실화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가격 인상을 자제해왔지만, 치솟는 비용 증가에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다.

치킨과 버거 등 프랜차이즈들은 가격 인상 카드를 빼들었으며 식품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미 코코아, 설탕 등 원재료 가격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최근 중동 사태 등 불안정한 국제환경으로 유가 상승에 원·달러 환율까지 치솟아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우려가 나온다.

〈관련기사 2·3·9·12면〉

당장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16일 오전 11시 41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5.2원 오른 1399.2원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00원을 돌파한 것은 2022년 11월 7일 이후 처음이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지역 불안정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데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더디게 둔화하고 미국 경제 성장세가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인하 시점

이 시장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등이 원·달러 환율 상승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식품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제품·서비스의 가격을 잇따라 인상하고 있다. 치킨 프랜차이즈 급내는 치킨 9개 제품 가격을 10% 가량 인상했다. 대표 메뉴인 '고추바사삭'이 기존 1만8000원에서 1만9900원으로 올랐다.

파파이스코리아는 치킨과 샌드위치, 사이드 메뉴, 디저트, 음료 등의 가격을 평균 4% 올렸다. 회사 측은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기 메뉴인 클래식 치킨 샌드위치와 스파이시 치킨 샌드위치의 가격은 동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노브랜드 버거가 판매 가격을 평균 3.1% 인상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누적된 인상요인을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들이 감내해 왔다"며 "당장은 제품 가격을 올리지 않더라도 시기의 차이일 뿐,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프랜차이즈의 가격인상은 식품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카카오 가루, 코코아의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국제 거래가는 1년 만에 3배로 뛰었고, 올해 1분기 설탕 가격지수도 지난해보다 20% 상승했다.

초코파이를 생산하는 제과업체 1위 오리온은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2600선 위협받는 코스피

코스피가 전 거래일(2670.43)보다 60.80포인트(2.28%) 하락한 2609.63에 마감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어 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852.42)보다 19.61포인트(2.30%) 내린 832.81,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384.0원)보다 10.5원 오른 1394.5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롯데웰푸드도 초콜릿 제품 가격 인상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롯데웰푸드 측은 "코코아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며 "회사가 현재까지 원가 압박을 감내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가격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용유와 설탕, 된장 등 필수 가공식품은 이미 가격이 상당히 오른 상태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분기 다소비 가공식품 32개 품목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25개 품목의 가격이 상승했다.

전체 평균 상승률은 6.1%였고 오븐 품목의 평균 상승률은 9.1%였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의 2배에 가깝다.

여기에, 중동 리스크로 국제원유 가

격이 오르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은 전 세계 원유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특히 이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세 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은 국가다.

이 때문에 향후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전개 양상에 따라 국제 유가는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불황 속에서 섰던 가격 인상을 진행했다가 되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하지만 지속되는 원재료 가격 인상 부담과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까지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사면초가' 韓 증시 코스피 2.28% 급락 시총 상위주 '털썩'

SK하이닉스·삼성 등 큰폭 떨어져

국내증시가 중동발(發) 리스크, 원·달러 환율 급등,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 후퇴 등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급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6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2670.43)보다 60.80포인트(2.28%) 하락한 2609.63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 2610선 밑으로 내려온 건 지난 2월7일(2609.58) 이후 2개월여 만이다.

코스피가 급락한 이유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 충돌에 따른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와 미국 3월 소매판매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 데 따른 미국 고금리 장기화 우려, 중국 소비지표 부진 등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한 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0.50원 오른 1394.5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2934억원, 2720억원을 순매도했다. 음식료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특히 의료정밀(-4.27%), 기계(-3.22%), 운수장고(-3.20%) 등의 하락폭이 컸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는 현대차(0.21%), 기아(0.09%) 등을 제외한 전 종목이 내렸다. SK하이닉스(-4.84%), 셀트리온(-3.70%), 삼성전자(-2.68%) 등이 큰폭으로 떨어졌다.

(2면에 계속) /원관희 기자 wkh@

## 尹 "서민 삶에 대한 배려 부족... 3대·의료개혁 매진"

국무회의서 총선 후 첫 입장 표명  
'반성' 강조... 국정과제 추진 의지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16일 4·10 총선 이후 6일 만에 관련 입장을 내놓았지만, 정부 역할에 대한 반성만 있었을 뿐 국민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초,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개혁), 의료개혁 추진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독선적 선언", "국민이 몰라빠서 죄송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여



당의 총선 참패와 관련해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정부의 정책에 대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는 총선 이후 6일만에 내놓은 첫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이

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데 모자랐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실시한 ▲건전재정 기초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 관련 정책 ▲원전 생태계 복원 ▲사교육 카르텔 혁파 등을 열거하면서 정부가 사각지대를 세심히 살피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국회와의 협조와 소통도 강조했다.

이같은 입장에 대해 야권은 맹비난

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반성은커녕 지금까지처럼 용산 주도의 불통식 정치로 일관하겠다는 독선적 선언"이라고 비판했고,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 자신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했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하니 국민이 외려 사과해야 하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에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예진 기자 syj@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정부, 내년까지 50만 장병 대상 '찾아가는 경제교육' 실시  
▲ '금배지 1호' 정청래 "영입인재 1호 박지혜 당선인에 양보" /사진 뉴시스

▲ 재외동포 비례정당 득표율... 조국혁신당, 민주당, 국민의힘 순  
▲ 한총리, 세월호 10주기에 "국민 안전·생명이 국정 최우선"



▲ 윤재옥 "野 선거 승리했다고 채상병 특검법 독소조항 해독안대" /사진 뉴시스  
▲ 김종민 "새미래 왜 지지 못받았는지 냉철한 평가 후 거취 결정"